

1 줄임 6·2 지방선거 민주 광주시장 후보 경선 조기 후보단일화 논의 왜

‘2강 판세 뒤집기’ 중소후보들 승부수

(박광태·강운태)

성사뎀 3파전 압축... 넘어야 할 산 많아

‘후보 단일화’가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의 초반 관전 포인트로 등장하고 있다. 경선전 막판에 필승 전략으로 등장하는 후보단일화 카드가 왜 후보 등록도 전에 등장한 걸까. 파괴력은 어느 정도일까.

후보 난립, 앞당겨진 경선일정과 시민후보제 도입 등 예전과 달라진 선거환경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지역 정치에서는 말한다. ‘1강 1중’ 혹은 ‘2강’으로 시작된 초반 판세에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선이 지방선거 2개월 전으로 당겨지고,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해 후보를 압축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중소 후보들이 전세 뒤집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단일화 회동 잇따라=24일 지역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양형일 전 의원, 정동채 전 장관, 정찬용 전 수석 등이 18일 전격적으로 회동해 후보단일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다음달 2일 함께 예비 후보 등록과 5·18 국립묘지 참배를 한 뒤, 단일화 논의를 알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는 계획이다. 양 전 의원은 이용섭 의원과도 지난 12일 만나 단일화 전까지 서로 최대한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반에는 후보 단일화 논의가 수면 밖으로 떠오르면서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레이스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로 등장할 전망이다.

◇유력한 판세 뒤집기 카드=단일화 논의는 박광태 시장, 강운태 의원 등 선두그룹을 제외한 후보군끼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애초 4월경에 예상됐던 광주시장 후보 경선이 3월 초·중반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초반 판세를 흔들 카드로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가 성사되면 선두그룹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내걸 가능성이 크다. 후보단일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켜 각자의 지지율을 끌어 올린 뒤 다음달 하순이나 3월 초순, 극적인 단일화 합의로 단번에 판세를 뒤엎는다는 전략이다. 최종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광주의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했다’는 정치적 퇴로가 확보된다는 점이 매력이다.

◇넘어야 할 산 많아=후보 단일화가 현실화되기에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벌써 후보단일화를 논의하고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여론조사 방법 등을 놓고 미묘한 갈등이 감지되는

등 이견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너무 빨리 카드를 꺼내들면 후보에 따라서는 지지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유력 주자들을 제외한 후보단일화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논의 대상 후보들이 모두 ‘변화와 개혁’이라는 단일화 명분에 적합하나 시뮬거리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후보 단일화 참가자는 2~3명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

되고 있다. 하지만, 단일화에 성공하면 현재의 다자 구도를 ‘3파전’으로 압축하면서 경선판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것이 F1 레이싱카

오는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F1 코리아그랑프리를 홍보하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 동대문 코모닝시티 야외 광장에서 열린 포뮬러 원(F1) 그랑프리 데모카(Demo-car) 전시 체험 행사에서 레이싱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름



새 봄 희망을 달린다

제45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최고의 전통, 최상의 코스, 최선의 진행을 자랑하는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가 3월1일 개최됩니다.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며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세계 만방에 알린 선조들의 정신을 기리는 광주일보의 3·1절 마라톤은 2010년 제45 회제를 맞아 호남은 물론 전국 마라토너들과 그 가족이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열리게 됩니다.

광주일보사는 44회 대회의 칭찬과 격려에 안주하지 않고 이번 대회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 참가자들의 안전과 건강, 가족과 직장, 동료 인간들의 우의를 다지는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봄의 환한 기운이 약동하는 대치를 함께 달립니다.

- 일시: 2010년 3월1일(월) 08:30~16:00 (풀코스출발 09:00)
- 장소: 광주월드컵 경기장 ↔ 남평교
- 종목: 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
- 마감: 2010년 2월 10일(수)
- 문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kjmarathon.co.kr) (062) 220-0541
- 주최: 광주일보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주관: 광주육상경기연맹, 전남육상경기연맹

光州日報社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시민배심원 적용 논란일 듯

광역단체장·교육감 내달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내달 2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한 가운데 민주당이 전라공천지역 내에서 실시하기로 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광주광역시 후보 경선에 도입할지 여부가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3·4·5면)

민주당은 지난 22일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시민공천배심원 경선은 현재 30%내에서 전라공천하기로 돼 있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 시민공천배심원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광주시의 정치적 비중이 너무 커서 전라공천지역으로 채택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강기정 의원은 24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30% 전라공천지역 ‘내’라는 의미는 그 이상으로는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상한선의 의미이지 전라공천지

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 한해 도입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의미를 확실하게 위해서는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당 지도부와 협의의 거친 내용이 아니어서 실현되기까지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철 광주시장위원장은 “강 의원의 개인적 소신”이라며 “중앙당 및 시장 공심위가 구성되면 위원들과 광주 국회의원들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준선 최고위원도 “광역단체장 후보 선정에는 국민(참여)경선이 기본이 되고 시민배심원제는 예외·제한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며 “(광주 도입 여부를) 아직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예외 방법을 사용하려면 그만큼 명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선관위는 ‘6·2 지방선거’ 120일 전인 내달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업무가 시작되면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홍보물 발송(1회로 한정), 대량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기간까지 합산해 5회 이내 범위에서만 허용)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 예비후보자 등록하려면 등록 전까지 의원

직을 사퇴해야 하고, 현역 단체장의 경우 시작할 필요는 없지만 등록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러 내달 19일부터는 광역·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들이 등록을 하게 된다. 다만 군(郡)의원 및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21일부터 시작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 설립 56주년 (1954~2010)

민음, 소망, 사랑으로
커뮤니티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과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광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서울대도 학과별 모집 부활

2011학년도부터

상당수 사립대에 이어 국립대인 서울대가 일부 학부 및 계열을 학과 단위로 해체하는 작업에 돌입함에 따라 대학가의 학과제 복귀 움직임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대는 24일 학부·계열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서울대 주요 단과대학들이 2011학년도 입시부터 과거 학과별 모집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복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명환 교무처장은 “이번 주부터 논의해 3월 전까지 일부 학부 및 계열

을 학과 단위로 분리하는 내용의 2011학년도 신입생 선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대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우려해 당장 이 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초 연세대와 외국어대는 2010학년도 입시부터 학과별 모집을 확정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건국대가 문과대와 이과대의 학과별 모집을 결정했다.

한편, 전남대는 불필요하게 통합된 학부는 학과별 모집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채희종기자 chae@연합뉴스

세종시, 모두의 희망을 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 광주 전남으로 볼 것이 세종시로 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산업용지 가격인하 방안을 지원하겠습니다.
• 나후 혁신도시에 한창이던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중앙정부기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유치도 돕겠습니다.